

전영준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회장

노숙인 등 취약계층 검진 확대로 추가 감염 차단해야 ... 협회 역할 중요

지난 3월 결핵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전영준 동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이자, 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정부는 매년 결핵예방의 날 우리나라 결핵사업에 기여도가 큰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데, 전영준 지회장은 공공과 민간 부분의 협력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 학교 일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학자로서의 지식을 국가결핵퇴치사업에 풀어나며, 협회 지회장으로서 지역 결핵사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영준 지회장을 만나보았다.



지난 결핵예방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분을 다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되니 민망하고, 과분합니다. 다만 PPM 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던 데 대해 평가를 좋게 받은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PPM 사업에 특히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PPM 사업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독자 여러분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결핵은 감염성 질환이고 타인에 대한 파급력이 큰 만큼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질환입니다. 과거 보건소 등에 의해 결핵관리가 이루어졌을 당시 공공과 민간의 환자 비율이 7:3 정도였다면, 2000년대 이후 결핵환자의 치료는 공공과 민간 부분에서 1:9 정도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치료할 수 있도록 추구관리까지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치료효율도 떨어지고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출범된 것이 PPM(Private-public Mix, 민간공공협력)인데, 민간 의료기관의 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결핵 전담 간호사를 병·의원에 파견하여 결핵환자들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3년 전부터 대구·경북 지역 16개 병원의 PPM 사업을 총괄해 왔고, 올해부터는 행정 구역별 관리를 위해 대구 시내 7개 병원의 PPM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PPM 사업이 5~6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 성과와 의미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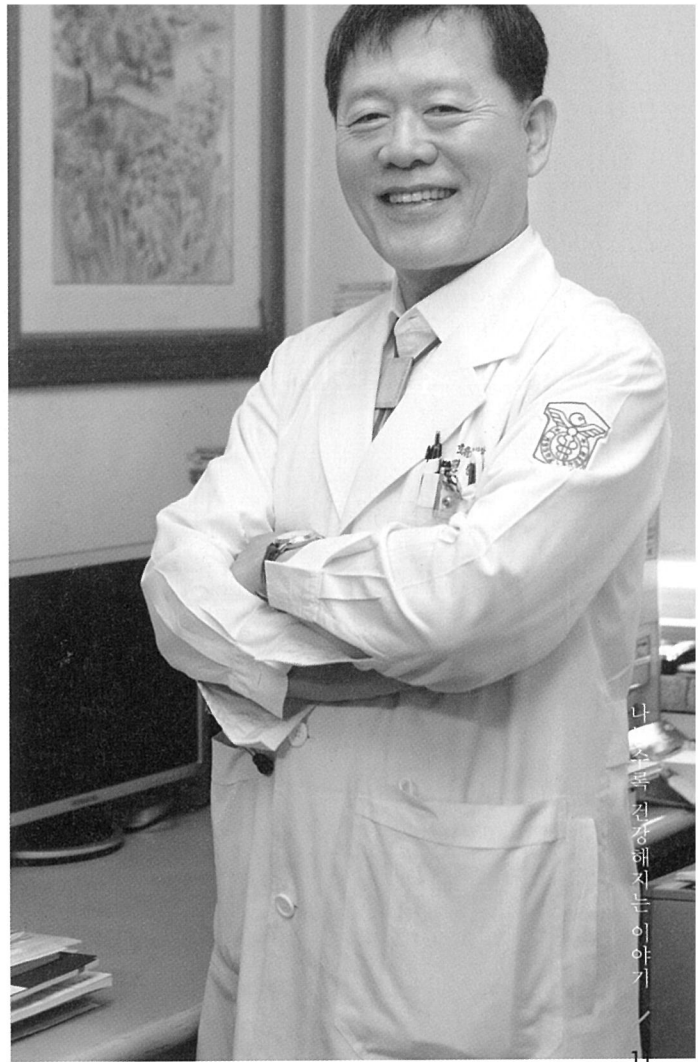
민간 의원에서는 결핵환자의 추서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 이상 긴 복약치료가 이루어지는 결핵치료에 있어 사업 전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PPM 전에는 민간 병원에서의 환자 탈락률이 20%, 완치율이 50% 정도였는데, PPM 시행 이후 치료성공률이 85% 정도로 크게 늘었고, 중단률도 2.4%까지 낮아졌습니다. 결핵은 전염병이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큼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결핵환자가 많은 편인가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병원 환자 중에는 COPD 환자가 가장 많고, 결핵, 천식, 폐암 환자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70년대까지 결핵 유병률이 7%였고, 지금 현재도 OECD 국가 중 결핵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만큼, 결핵 문제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 중단 환자들, 환자의 가족들, 접촉자 문제, 다제내성환자 등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이 있었지만, 형제가 전부 결핵에 걸렸는데 다제내성결핵으로 모두 돌아가시고 마지막 남은 한 분이 최근 몇 년 전까지 치료 받고 완치된 일가족이 기억납니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결핵에 대한 인식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 누군가에는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한결핵협회가 결핵 전문가관으로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더 매진해야 할까요?

우선 결핵 확산을 막기 위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검진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 군인 등 집단활동이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확대하고,



나수득, 결핵해지는 이야기

특히 노숙인 등 고위험집단에 대한 검진 및 집중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그밖에는 감염률 조사라든가, 접촉자, 밀접접촉자 검진 등을 통해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에 한정되고 있는 예방화학치료도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결핵관리사업이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감염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야겠죠. 선진국 처럼요.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을 관리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건강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건강관리랄 것은 없는데..., 평소 지나친 음주나 흡연은 피하고요(웃음), 주말에 등산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래(성악)하는 것 정도. 너무 평범한가요? †